

## 차라투스트라(拔抄)

裴相河

차라투스트라가 노래불을 썬  
나는, 잠잠고 듯기만 한다.  
굿세인매로디-의마디~힘이  
나의 恍惚을 硬化에까지 미치게함으로.

차라투스트라가 노래를 쓴을 썬  
비로소, 나도, 노래를 불러본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의 노래도  
그의 불은 노래를, 되푸리할 뿐이다.  
오냐!, 偉大한 차라투스트라야  
너의 넘치는 힘이, 나의 혀를 蓄音機化해 버렸든들  
왜!, 나의게 무슨 不平이 잇겠느냐?

그럼, 듯자!  
쉬-, 四方은 고요하라  
힘이 썬다, 反逆이 춤을 춘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노래 부르리다.

(나의 머릿말)

× × × ×

超人은 大地를 意味한다. 그럼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意志로 하여금 불으깃게 하라.-  
-超人은 大地를 意味하는 수 받게 업느니라고.

그러면, 나의 兄弟여!, 나는 너희들의게 原하노니, 어대까지 쫓까지, 大地의  
게만 忠誠돼라. 그리고, 너희들의게, 天上의 希望을 說敎하는 모-돈 것을 밋

지말라!

× × × ×

眞實로 人間은 濁流이다. 그럼으로, 自己를 濁化치 안코 濁流를 收容할수 있게 됨에는, 人間이 곳 大海가 되어야 하느니라.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超人을 가르키련다.

「超人은 大海이라」고. (序言)

× × × ×

한새엔, 차라투스트라도, 모-든, 背世界者와 갖치, 그의 幻想은 人間の 彼岸에 달닌적이 잇섯다.

그새에, 世界는, 苦悶을 못익이는 神의 濫造라고 나의겐 생각되엿다.

그새에 世界는 나의꿈이라고 생각되엿고, 神이 맨든 詩라고도생각되엿다. 神에게 不平이 만흔 네 눈에는, 五色의 煙氣와도 갖치 보엿다.

善과 惡과, 快樂과 苦痛과, 너와 나와, 이 모-든 것이, 創造的인 나의 눈에는, 彩色의 煙氣로 맞게 보이지 안엿다. 創造者가 몹시도 自己自身에게 실증이 낫슬새, 그는 이 世界를 創造하엿든 것이다.

괴롭이 만흔 者에게는, 自己를 নিজ버리는것이 天上의 悅樂이니, 한새엔, 이 世界도, 나의겐 天上의 悅樂이며, 忘我的 歡喜이엿섯다.

永久히 不完全한 이놈의 世界, 永久히 矛盾되는 現象과 不完全한 事象은, 그의 不完全한 創造에겐 無限한 歡喜이 엿섯다-엿던새는 이럿케도 생각되엿든 것이다.

이와 갖치, 지나간 날, 나는 모-든 背世者와 갖치, 나의 幻想을 人生의 彼岸에 달렸섯드니, 그것이 眞實한 人生의 彼岸일까?

아!, 너희들 兄弟여, 나는 괴롭이 많은 者, 나 自身을 익여낸 者, 나는 마음의 재(灰)를 山에다 버리고 그리고, 더 셋빨간 불꽃을 맨들엿노라. 보라!, 이 새에 神이란 幽靈은, 나를 썬나는 것이다.

(Von den Hinterweltera 서)

× × × ×

나의 동모여, 너는 너의 寂寞 가운데로 돌아가라...

曠野와 岩石만이, 너와 더불어 沈黙을 알고있다. 다시금, 너의 사랑하는, 가지 넓은 나무와도 갖치 나되여보라. 가만히 귀를 귀우리고, 나무는 바다를 노려볼 다름이 안닌가!

孤獨이 썬나는 그곳에 市場은 始作된다. 市場이 始作되는 그곳에, 俳優와 喧噪와 毒蛇의 소리만이 차고 마는 것이다.

.....(이하 해독 불가)

.....  
市場과 名譽 썩난 그곳에야 비로소 모-든 偉大는 생기나는 것이다. 市場과 名譽를 썩난 그곳에야 비로소 새로운 價値의 發見者가 살엇섯다.

나의 동무여!, 너는 너의 孤獨으로 돌아가라. 나는, 害毒의 파리가 너를 괴롭게함을 본다. 그럼, 돌아가라, 猛烈한 바람이 쓴임업시 부는곳으로.

너의 孤獨으로 돌아가라. 적은 者, 불상한 者에게 너무나 갓가히 너는 살고 있다. 그네들의 보히지 안는 復讎서 避하라. 그네들은, 너의게, 復讎안닌 아모것도 아니다.

이젠, 그네들에게 손짓도 말라. 그네들의 數조는 너무나 만코, 파리쫓는 職務만이, 너의 宿命은 안니니깐!

이와 갓튼 적은者 불상한者는 數도 업시만타. 그리고, 雨滴과 雜草가 高大한 만흔 建物を 廢墟로 變한 적도 이미 오랬다.

勿論 너는 뚝이 안이로되, 오랫동안의 雨滴은 너를 쫓코 있다. 머지안흔未來에, 雨滴으로 말미암아, 너는 破滅을 當할지니, .....

.....  
.....(이하 해독불가)

너의 隣人은 恒常 害毒의 파리이니, 너의 偉大-그것이, 밧서, 그네들을 有毒케하고, 害毒의 파리를 맨드난 것이니라.

나의 동모여!, 너의 寂寞, 쏘는, 바람몹시 부는 곳으로 돌아가라, 파리 쫓는것이, 너의 宿命은 안니러니, ..... ..

(Von deu Fliegen des Marktes 서)

× × × ×

나는 山谷을 사랑한다. 都市에 삶은 나의 뜻이안이로다. 거기엔 너무나 만흔 淫逸이 잇스니, 淫濫한 婦女의 꿈에 썩러짐보담 차라리, 殺戮者손에 썩러짐이 낫지안흔가?

그네들을 보라. 그네들의 눈은 이럿케 말하고있다 -婦女의 것서 사는것처럼, 地上의 歡樂은 업느니라고,

汚穢만이 그네들 가슴집피 감춰잇스니, 이 汚穢로써 靈魂을 가져다면, 오!, 그것은 얼마나 悲慘한 일이 안인가.

적어도, 너희들은, 禽獸로써라도 完全키를 바라노라. 그러나, 禽獸에겐 邪念이 업서야한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本能을 죽이라고 勸할소냐? 나는, 單只 邪念업는 本能을 勸할다름이다.

(Von der Keuschheit 서)

× × × ×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의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隣人愛는, 너희가, 너희들을 自身에게 對한 最惡의 사랑이니라.

내가, 너희들의게, 隣人愛를 勸하느냐?, 안니다. 차라리, 隣人逃避와 最遠愛를, 나는 勸하노라.....

나는 너희들에게 隣人을 가룻키지 안코, 차라리, 「벗」을가룻키마. 「벗」으로 하여곰, 너를爲한 祝祭司되게하고, 超人의豫咸됨이 되기 爲하야. 나는 너희들에게, 「벗」의 넘치는 心情을가 룻키마 그렇지만, 넘치는 心情에서 사랑을 맞으려면, 너희는 한 개의 海綿이 되지안으면 안니된다.

.....

.....너의 「벗」가운데, 너는, 너의 動因이 될만한 超人을 사랑하라. 나의 兄弟여!, 隣人愛를 나는 너희들께 勸하는것이 안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먼 것에 對한 사랑을勸하노라.

(Von den Nachasteuliebe 서)

× × × ×

너무나 만든 사람이, 늦도록 사는데, 었던 사람은 너무노 빨리 죽어간다. 「適當한 때에 죽어라」는 敎訓은, 몹시도 奇異한, 가르침 갖치도 들닐것이다.

適當한 때에 죽어라-차라투스트라는, 이렇케 가르킨다. 그렇지만, 適當한 때에 살지 못한者가, 어이, 適當한 때에 죽을 수잇겠느냐?, 차라리 그가 나질언헛든들-살어도 쓸데업는 者들께, 나는 이렇케 勸告한다.

.....

모-든 사람은, 죽음을 重大視하고 있다. 그렇치 만은, 죽음은 決코 祭祠가 니라. 아직까지 그네들은, 무엇이 最上의 祭祠임을 알지 못하고잇구나.

산者에게 刺戟이 되고, 盟約이 되는, 그러한 大成의 죽음을, 나는 너희들께 보여 주마.

大成할 者는, 希望하는 者, 盟約을 맺는 者의 한복판서, 最后의 凱歌를 불으면서,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케 죽기를, 너희들은 배후라. .... 이러한 죽음이야말로 最上의 죽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죽음을 讚美하노라. 나의게 오는 自由의 죽음을, 내가 原하는 故로, 나는 讚美한다.

.....

.....  
.....

해부라이 사람예수가, 해부라이 사람의 눈물과 설흠, 善良한 者와 公正한 者의 미움만을 늦것슬 쎄, 그쎄, 죽음의 憧憬이 그를 誘惑하였섯다.

그가, 山野에만 머물름으로써 善良한 者, 公正한 者, 公正한 者의게서 쎄러 저 잇섯든들, 應當, 그는 「삶」을 배윗슬 것이며, 쌍을 사랑함을 배윗슬 것이며, 또한 「웃음」을 배홀수가 잇섯슬 것이다.

.....  
.....

너희들이, 담박에 죽는 限이 잇드래도, 너희들의 心靈과 너희들의 德만은, 온 大地를 물들이는 저녁노을과도 갓치 빛나야만 한다. 그러치 안으면, 너희들의 죽음은 失數이다.

(Vom freien Jode 서)

× × × ×

모-든 神들은 죽어버렷다. 그리고, 只今 우리들은, 超人만이 살기를 바라노라.

(Von der schenkenden Tugend 서)

× × × ×

神은 推測의 하나이다. 그러치만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創造意志로 하여곰, 늘 推測보담 압서게 하기를 바라노라.

.....

萬若에 神이 잇다면은, 나 自身이 나의 神이 왜 못되리?, 그럼으로 神은 업나니라.

(Auf den glucksligen Imeln 서)

× × × ×

내가 그를 도와줄 쎄, 나는 몹시도 그의 自尊을 害하는 것이다. 큰 思惠는, 感謝의 情보담, 도리혀 復讎의 念을 니르키게 한다. ....

「뵈기를 念慮하라. 뵈기前에 먼침, 또 한 번 判 斷해 보라」-나는, 이와 갓치, 아모 것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勸하노라.

.....  
.....

神은 죽엇다. 사람의게 對한 憐憫의 情 짜위, 神은 죽어버렷다.

(Vor den Mitleidigen 서)

× × × ×

어머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하듯, 너희들은, 너희들의, 「德」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치만은, 어머니만은, 그의 사랑의 報酬를 願치 않는 것이다.

.....  
.....

(Von den Tugendbaften 서)

× × × ×

건너편의 말업는 무덤, 거기엔 나의 무덤이 있다. 그곳에, 나는, 常綠인 人生의 花環을 가져가마....

아아, 靑春이여, 사랑하든 눈이여, 神聖튼 瞬間이여!, 너희들은 너무나 썰니, 나를 썬나가버렸다. 이날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썬, 나는, 곳,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

.....  
.....

그렇치만은, 나의게는 「하나」이 있다. 그것은 害치도 못하고, 죽지도 안는, 바위라도 軋트릴만한 「하나」이 있다. 그것이 「나의意志」가 아니고 무엇이리? 默默히 나아가고, 그래도 變치 안는.....

나의 意志만이, 나의 무덤의 破壞者이다. 그럼 나의 意志여, 튼튼하라. 무덤이 잇는곳에야만, 復活도 잇는 것이다.

(Das Grablied 서)

× × × ×

오!, 이젠 나는 어대로 가리?, 山속지에 혼자선 나는, 父母의 나라를 차저 본다.

그렇치만은, 나는, 나의 故鄉을 찾지 못하였다. 나는 엇썬한都 市에도 머물르기 실패서, 그냥, 나의 城門을 지나쳐버린다.

지나간 날, 나의 가삼을 울니는 모-든, 現代人은 지금에야, 나에겐 行路人이다. 썬는, 나의 侮辱者이다. 그리하야, 나는 나의 父母의 나라에서 放逐을 當했노라.

그럼으로, 나는, 單只, 나의 子孫의 나라만을, 가장 먼 바닷속의 未來의, 나라만을 사랑하노라. 나는, 나의 배로 하여곰, 그 나라를 찾게하고, 썬 찾게 하리라.

나는, 내가 나의 父祖의 子孫이 되었다는 罪를, 나의 子孫의게 代償하련다. 그리고 모-든 未來에 잇서서, 이놈의 現在을 辨償하마.

(譯者는 이곳서, 니-체를 模倣하야 「나는, 내가 朝鮮의 子孫이 되었다는, 크

나쁜 罪를, 다른 사람 아닌, 나의 힘으로 代償하련다. 그리고 모-든 未來에  
잇서서, 이놈의 흉측한 現在의 미움을 復讐하련다」

(Vom hande der Bildung 서)

× × × ×

天真爛漫이란 어찌 곳에 잇느냐?, 生産意志만이 잇는 그곳에야 잇느니라.  
自己를 超克하여 創造하려는 그 사람만이야, 가장 純粹한 意志를 가진者이  
다.

美란 무엇인가?, 내가 나의 모-든 意志로써, 意欲치 안코는 못견디는 그곳  
에야 美는있다.

(Von der unbeflecker Frkeuntnis 서)

× × × ×

人類의 슬픔은 갖싸웠다. 이 세에, 한 敎說, 한 信仰은 생겨 낫스니- 「모-  
든 것이 虛無타. 모-든 것이 그것이 그것이다. 모-든것은 過去이라」 고.

.....

그런치 만은, 이세, 이러한 세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로쓰고,  
괴롭과 갖치 살어보자

(Der Wahrsagen 서)

× × × ×

너희들은, 눈피울르기를 願할세에, 「위」(上)를 쳐다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눈피울랐슴으로, 밋(下)만을 내려보는 것이다.

.....

가장 높은山에 올른者야만, 모-든 悲劇과 悲劇的現實을, 웃을슬있다.

(第三部, 머릿말서)

× × × ×

그런치만은, 나의게는, 나의 일으는 바 「勇氣」가 있다. 只今까지의 모-든  
나의 煩悶을 죽여버린 나의 勇氣가 있다. 勇氣는, 나로 하여곰 부르짖게한다.  
- 「卑怯이여 너는 너고, 나는 나라」 고

勇氣! 戰鬥의 勇氣는 最善의 殺戮者이다. 戰鬥가 잇서야만, 凱歌도 불러짐  
으로. -

.....

勇氣는, 가장 깊은못(淵)가에 선 者의 어지러움도 죽여버린다. 그리고, 人生  
은 언제든지, 깊은 못가에서 잇지 안흔가!, 본다는 그것 自體가, 말서 깊은  
못을 들어가보는것이 아니고무엇이라.

勇氣는 最善의 殺戮者이다. 勇氣는 慈善을 殺戮한다. 慈善이 곳, 깊은 못이

니싼. ....

人生을 들여다 봄이, 곱프면 곱플사록, 人生의 苦痛도 곱퍼진다.

그렇치만은, 勇氣-, 戰鬥의 勇氣는 最善의 殺戮者이니, 죽음이라도 殺戮할 수있다. 그럼으로, 勇氣는 高喊친다.

「잇싸짓것이 人生이엇든가?

그럼, 어디

또 한 번, 싸휘 보자!」라고.

이 말 가운데, 凱歌가 있다. 귀가잇 거던, 들으려므나.

-끝-